

기둥 같은 일꾼

요한계시록 3:7-13

김승수 목사님 (증경총회장, 동석교회 담임)

요약

서론 : 성경 속에 나타난 '기둥'의 개념 -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

본론 : 기둥 같은 일꾼의 조건

1. 좋은 자질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부족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만들어가신다.
 2. 뿔히고, 잘리고, 다듬어져야 한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야 한다.
 3. 자기 위치에 굳게 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
 4.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과 감사를 누려야 한다. 이 영적 싸움을 놓치지 말라.
- 결론 : 기둥 같은 일꾼의 축복 - 축복의 문, 면류관, 명예로운 이름, 지위와 담력

내가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지 않지만, 해외에 나갈 일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있으면서 주일 낮에 본교회 강단을 떠나본 적이 없다. 주일오후에는 가끔이지만, 주일 오전 정시예배에 교회를 비우고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사랑교회가 처음인 것 같다.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최경웅 목사님께 참 감사드린다. 총회장 때는 종종 부름을 받았는데 총회장을 마치고 나니까 안 불러주던데, (웃음) 불려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하다. 주일 오전예배 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예배에 동참하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다.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되,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주신 미션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이 지금 먼 델러스에 선교를 위해 나가셨사오니,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귀국하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종이 두고 온 동석교회 주일예배에도 주께서 한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 : 성경이 말하는 기둥 같은 일꾼

한국, 중국, 일본 동양 3국을 한자문화권이라고 한다. 이 동양3국은 우주, 가정, 국가라는 단어에 '집'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 가정(家庭)에는 당연히, 국가(國家)도 큰 의미에서의 집이라는 의미다. 우주도 집 우(宇), 집 주(宙)자를 한자로 써서 만든 단어다. 집에는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집안의 기둥이라 할 때 '동량'이라는 단어를 썼다. 용마루 동(棟), 대들보 량(梁)이다. 그래서 기둥이 세워지고 마루가 연결되어야 비로소 집이 된다. 집에서 중요한 것이 기둥이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표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씀한다. 출13:21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다. 왕상7:21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의 낭실 앞에 두 기둥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붙였다고 했다. 또 성경에 보면 지도적인 인물을 기둥이라고 표현한다. 렘 1:18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갈2:9에도 보니까,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를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말한다. 또 딤후3:15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 사역의 핵심이요 기둥인 것이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했다. 오늘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여러분, 기둥 같은 교회의 일꾼은, 엡4:12 이하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또 교회를 봉사하고 자라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게 한다. 이런 기둥 같은 일꾼을 하나님은 세우신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좋은 자질이 갖춰져야 한다.

(1) 먼저 좋은 자질이 갖춰져야 한다. 기둥은 나무, 돌, 쇠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세울 때에는, 아무 나무나 세우지 않는다. 조건이 필요하다. 일단 커야 하고, 단단해야 하며, 구부러지거나 휘어져서는 안 된다. 굳게 잘 자란 나무를 가져다가 기둥을 삼게 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은 믿음이 크고, 마음이 크고, 비전이 크고, 능력이 클 뿐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고 단단해서,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변함없는 충직한 일꾼이다. 이들을 하나님은 교회의 기둥으로 쓰신다. 심성이 정직하고 생활이 성실하고 믿음이 바르고 교리가 확실한 이러한 성도, 이러한 중직자, 이러한 제직, 이러한 일꾼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2)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망해서, ‘나는 아무리 봐도 그런 자질과는 거리가 멀다. 믿음이 크지 못하고, 심지도 견고하지 못하고, 교리적인 신앙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기둥 같은 일꾼과는 거리가 멀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든 준비된 자질을 갖추어야 쓰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갖추기 전부터 지명하고 선택하고 불러서,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다.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을까? 결단 자체는 아름답지만, 창세기를 쪽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다. 수십 년이 걸렸다. 만약 내가 기둥 같은 일꾼의 자질을 갖지 못했다 해서 조금도 낙심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만들어 쓰실 것을 믿으라.

2. 뿔히고, 잘리고, 다듬어지고, 감동받아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기둥은 뿔히고 잘리고 다듬어지고 감동을 받아야만 기둥이 될 수 있다.

(1) 신에 나무는 많지만 기둥감인 나무는 골라야 하고 잘라내야 한다. 산 채로는 기둥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지금이 김장철이다.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는데, 나는 김치를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 배추가 김치가 되고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일곱 번 죽는다. 뿔히고, 칼로 잘리고, 소금으로 염하고, 고춧가루 넣어서 비빔 때 또 죽는다. 전에는 땅에다 묻었지 않나? 또 죽는다. 꺼내 먹을 때도 도마에서 자른다. 그리고 입에서 씹힌다. 일곱 번 죽는다. (웃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잘 죽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기둥 같은 일꾼은 잘리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듬어져야 한다. 용도에 맞도록, 나무의 질감이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다듬어져야 한다.

(2) 그리고 감동을 받아야 한다.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다. 유리 원통을 벽에 고정하고, 까지 않은 땅콩을 넣어 두었다. 그리고 오랑우탄이 이것을 어떻게 먹는가 보니까, 팔의 길이가 닿지 않도록 깊이 땅콩이 있었다. 그랬더니 오랑우탄이 물을 입으로 물어다가 원통에 가져다가 붓더라는 것이다. 땅콩이 떠오르니까 그체서야 간단히 주워먹었다고 한다. 이게 지능지수 80정도의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오랑우탄이 장난감 블록을 쌓아보라고 하니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손자를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한두 살만 되어도 장난감 블록을 쌓아서 가지고 논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 오랑우탄과 사람이 왜 다른가? 오랑우탄은 부모가 감동을 하지 않는데, 아이는 엄마가 감동하는 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외손자를 보면, 떨어지는 것만 봐도 엄마가 박수를 친다. 떨어졌다가 무릎으로 서면, 그랬다고 또 박수를 친다. 나중에 정말 일어하면 또 박수를 친다. 엄마가 그러는 걸 보면 우리 부모도 같이 기뻐하고 박수를 친다. 걸음마를 떼는 것을 보면 또 얼마나 신기한가? 날마다 감동이다. 그 아이를 보는 재미에 내가 폭 빠졌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만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감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게우시고 그 열구리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감탄을 내뿜었다. 하나님의 최초의 언어가 감탄사다. 하와를 향한 아담의 최초의 언어가 감탄사다. 이것은 시적 언어, 창조적 언어, 생명의 언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담긴 언어는 놀라운 감탄의 고백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 제직, 성도들이, 오늘 이러한 감탄을 연발하기를 바란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 감탄 속에서 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3. 자기 위치에 굳게 서야 한다.

(1) 이 기둥은 자기 위치에 굳게 서야 한다. 기둥은 옮겨다니면 안 된다. 기둥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자기 사명, 위치, 책임은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빌라벨리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 배반하지 않았다. 사명을 감당했다(계3:8). 기둥 같은 일꾼이 된 것이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될 뿐 아니라 총회의 기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에 기둥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2)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그 자녀를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15:16 말씀이다. 사49:15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둥 같은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스러운 제직과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신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성벽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사49:16).”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요14:18).”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리라(마28:20).” 주님의 약속이다.

연말 송년모임을 할 때가 가까워진다. 팔손이 넘은 할머니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다고 한다. 팔손, 구손 된 할머니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데, 할머니가 제안했다. “오랜만에 모였으니 교가를 부르자!” “아니, 그걸 기억하고 있어? 나는 못 하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웃음)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다.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교가를 잘 기억하고 있어?” (웃음) 이분이 집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자랑했다. “내가 오늘 동창회에 가서 교가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지.” “아니, 당신, 아직도 교가를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불렀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보, 그 교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은가봐?” (웃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고 약해진다. 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 성벽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지명하여 불렀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4.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과 감사를 누려야 한다.

(1)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고백해야 한다. 그렇다. 딤후1:12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한다.

(2) 고대 헬라인들은 네 가지 감사를 했다고 한다. 첫째가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둘째가 남자로 태어난 것, 셋째가 종이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넷째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었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감사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음을 감사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정말 감사한다. 한국에 교단 교파가 많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분명한 복음을 가진 바른 교회, 바른 목사님, 바른 단체, 바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깨닫고 감사한다. 믿으시기 바란다.

①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굶어서 죽어가는 나라들이 많다. 언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날 지 모르는 나라들도 많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지 않나? 아편 소리가 시원치 않다. (웃음) 나는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북한 아니라 남한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요즘 흥흥하다. 이상한 사람들이 12월 전쟁설을 퍼뜨리고 그러는데, 땅굴이 있다면 외국 나갈 것이 아니고 나라를 지켜야 할 것 아닌가?

② 이 땅에서 태어나서,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후배 목사가 인사를 했다. “목사님, 2등이십니다.” 뭘 소리인가 했더니 코 고는 소리가 2등이라는 것이다. 코 고는 사람은 자기가 코를 고는지 모르지 않다. 집에서 잤는데 집사람이 밤에 없길래 아침에 물어보니까, 시끄러워서 다른 방에 가서 잤다는 것이다. 나는 코 안 끈다. (웃음) 못 들었으니까. 하지만 들은 사람이 있더니 어쩔 수 없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코를 고는데, 새벽 정한 시간이 되면 일어난다. 숨이 안 끊어지고, 살아서, 일어나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란다.

③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위치에서 보배로운 위치로 세움을 받았다.

④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복음을 알고 바로 가르치는 교단이다. 참사랑교회는 복음운동을 펼치는 전위대와 같은 교회다. 참사랑교회 주일학생이 복음메시지를 암송한 영상을 나도 보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훈련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고 감사했다.

이번에 한기총에서 임원회를 했는데, 국민일보에서 보도했다. 새로 한기총 회장인 이영훈 목사님이, 개혁교단, 다락방과 류목사님에 대해서 중대한 결단을

할 것처럼 추측성 보도 기사를 썼다. 그래서 나도 글을 썼다. “한기총이 류광수 목사와 다락방 전도운동을 재론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 제목이 이것이다. 재론할 필요가 없다. 첫째는, 다락방 전도운동은 벌써 2012년 1월에 한기총에서 한국의 우수한 신학자와 이단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교단을 막론하고 연구 조사를 마쳤다. 150개 문항을 가지고 류광수 목사를 직접 불러서 묻고 답했다. 그 결과 이분의 가르침은 이단이 아니며, 가장 정확한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 것임을 이미 판명했다. 재론할 필요가 없다. 둘째, 회의법 중에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있다. 한 번 공기관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재론하고 삼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셋째, 한기총의 위상 때문이다. 한기총은 한국 교회의 가장 보수적인 교단들로 구성된 연합 기구로서, 한국교회의 모든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해 온 기관이다. 일부 교단들이 뛰쳐나가서 한교연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있지만, 위상이 다르다. 뭐가 다른가? WCC 부산 총회를 할 때, 한국교회 중에서 정면에서 나서서 WCC 운동은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 한기총이다. 지금 개종전도 금지법, 동성애 차별 금지법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면에서 신학적, 성경적 토대를 지니고 바르게 대처해나가는 단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외에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일부 교단, 일부 단체에서 논란을 한다고 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넷째, 개혁교단은 한국교회의 가장 전통적인 개혁주의적 신학과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지도하는 교단이다. 교단에 속한 목회자와 단체를 폄하하는 것은 교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영훈 대표회장이 한기총 회장으로 취임할 때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다. 전임 홍재철 목사님의 지도 노선과 한기총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재론한다고 하면 정면에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한다. 설교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엡6:12).”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흑암세력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종식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잘못된 신앙노선들을 철폐해야 한다.

결론 : 기둥 같은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기둥 같은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1) 첫째,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계3:8).” 어떤 문이 열리는가? 마음 문이 열린다. 기도 문이 열린다. 옥문이 열리고 단뿔된 문이 열린다. 전도 문, 축복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기둥 같은 교회와 일꾼들이 될 것이다. 참사랑교회가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2) 또 한 가지다. “내가 속히 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절에 말씀했다. 우리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졌다.

(3) 셋째, 명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3중으로 공증(公證)했다. ‘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을 공증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3중으로 보장한다는 말씀이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기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란다.

(4) 그리고 마지막이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 딤후3:13에 말씀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집사는 ‘오이코노스(οἰκονόμος)’라는 말인데, 일꾼이라는 뜻이다. 기둥 같은 일꾼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예배한 주의 성도들을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대 마지막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개혁총회를 축복하시고, 총회 안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